

# 대선 후보들 ‘佛心잡기’ 본격 시동

## 정동영·문국현 후보 등 법전·지관 스님 잇단 예방

대선 후보들의 불심잡기 행보가 빨라지고 있다. 정동영 대통령후보인 대선 후보와 (가칭)창조한국당 창당을 준비 중인 문국현 대선 후보는 10월 22일 잇달아 지관 스님을 예방했다. 지관 스님은 후보들의 건강을 기원하고 “바른 정치를 해 줄 것”을 당부했다. 두 후보는 조계사 대웅전을 참배하고 불자들과 일일이 인사를 나누며 불심잡기에 나섰다. 이에 앞서 10월 11일 대통령 선거 출마를 선언한 이수성 국민연대 대표도 18일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을 예방했다.



정동영 후보가 10월 25일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을 예방했다. 정 후보를 반갑게 맞이하는 법전 스님(왼쪽).

정동영 후보는 10월 24일 한국 불교종단협의회 초청 간담회에 참석해 △종교평화정책 시정 △남북 공동 불교 문화재 복원 지원 △전통사찰 지정과 문화관광 사찰 육성 △국제불교문화센터 건립 지원

△법배 등 불교문화의 세계문화유산 등재 지원 △문화재위원회 및 방송위원회 내 불교계 인사 증원 등 불교관련 공약을 소개했다. 25일에는 합천 해인사를 방문해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을 예방했다.

이 자리에서 법전 스님은 ‘화합정치’를 강조하며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화합이고 둘째가 경제, 셋째가 안보인데, 이를 바탕으로 국가를 잘 이끌어 달라”고 당부했다. 여수령 기자

# “공정·투명 선거 치르겠습니다”

### 마곡사 주지후보 출마자 서약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로 치를 것을 약속합니다.”

조계종 제6교구본사 마곡사 주지 후보 출마자들이 10월 24일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 앞에서 공정한 선거를 서약했다. 주지후보에는 양산(前 총무원 사회부장) 법용(보령 선림사 주지) 무임논산(상계사 주지) 원혜(前 봉은사 주지) 스님이 등록했다. 출마자들은 이날 공정선거 이행 서약서에 서명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 이행 △상호비방을 하지 않고 합법적이지 않은 수단을 동원

### 양산 스님은 출마 소감을 묻는 질문에 “비 온 뒤에 땅이 굳어지듯, 수년간 누적되어 온 마곡사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새로운 길을 열어갈 것을 약속한다”고 말했다.

법용 스님은 “사부대중이 화합하는 사람로 만들겠다”고 말했다고, 원혜 스님은 “사부대중이 다 함께 힘을 합쳐 고쳐나가고 기도와 포교의 도량으로 일구겠다”는 뜻을 밝혔다. 마곡사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해원)는 10월 31일 오후 1시 마곡사 연화당에서 주지 후보자 선출을 위한 산중총회를 개최한다. 여수령 기자

양산 스님은 출마 소감을 묻는 질문에 “비 온 뒤에 땅이 굳어지듯, 수년간 누적되어 온 마곡사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새로운 길을 열어갈 것을 약속한다”고 말했다. 법용 스님은 “사부대중이 화합하는 사람로 만들겠다”고 말했다고, 원혜 스님은 “사부대중이 다 함께 힘을 합쳐 고쳐나가고 기도와 포교의 도량으로 일구겠다”는 뜻을 밝혔다. 마곡사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해원)는 10월 31일 오후 1시 마곡사 연화당에서 주지 후보자 선출을 위한 산중총회를 개최한다. 여수령 기자

## 현대불교신문

### 영상사업단 사업안내

본사는 '현대불교 영상사업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영상을 통한 사각과 장각을 동시에 자극하는 생생한 메시지 전달력으로 이미지 형성 및 설득력이 빠르고 정확합니다.

●영상사업 분야: 사찰홍보 행사, 개인다큐(자서전, 단체 사찰순례, 강, 의, 법문, 기업 성지순례, 기업동영상홍보제작)

●현대불교 영상사업단/감독 김봉환(前 KBS/동아TV/촬영감독, 강원대 영상학강사)

문의 : 02-2004-8279

##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회장: 노대행 발행: 편집인: 박해월 인쇄인: 노진환

110-734 서울특별시 종로구 안국동 175-87 안국빌딩 6층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34-55 인터넷 실시간 현대불교 www.buddhanews.com

FAX (02)737-0696 불교포탈 부디피아 www.buddhapia.com

광고국 (02)2004-8213-7 온라인광고 애드부디피아 http://ad.buddhapia.com

FAX (02)737-0696 온라인서점 여시아문 www.yosiamun.com

현대불교 부산지사: (051)632-0064 대구지사: (053)768-8008

경남동부지사: (055)353-1196 경남서부지사: (055)355-7472

울산지사: (052)272-0909 경남남부지사: (055)746-9778

대전충북지사: (043)732-5560 영주지사: (054)634-3429

구독신청·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1개월 5천원·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 15일 창간 등록번호: 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규정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 “시대에 발맞춘 새로운 이념 정립 절실”

### 〈면면에서 계속〉

▶윤세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우리나라는 불교가 농경시대부터 정착돼왔습니다. 사회는 농경시대-산업화시대-후기산업화시대-현재 정보화사회를 거치면서 발전하고 있지만 불행하게도 승가는 1600년 전통만 강조하다 보니 농경사회에 그대로 머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광식: 세간에서는 조계종단에 대해 자정 능력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자정능력은 불법과 종헌종법, 시스템들이 조화된 무엇이 있어야 하는데 현재 종단에는 기존의 관행만 존재할 뿐 그 이상이 없습니다. 또 자자 포살, 합의운영 등의 전통적 시스템은 있으나 현재로서는 유명무실합니다. 조화된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과거에는 큰스님(선지식)이 계서서 종단과 교구본사의 중요사에 발인 하고 인정 하는 관행과 틀이 있었지만 현재는 그렇지 못합니다. 현재는 이해관계에 있어서도 아무도 큰스님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즉 어른들의 의견에 힘이 실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총무원 스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사를 치면

결재를 하는 책임 있는 자리지만, 권위가 살아있지 못합니다. 그분들이 말하면 따라줘야 하는데 현장에서, 대중들은 그렇지 못합니다. 심지어는 종헌종법도 따르지 않습니다. ▶현각 스님: 이런 모습들에 어떤 부분은 무감각, 또 어떤 부분은 자기합리화를 위해 귀를 막고 있습니다. 일반적 강요만으로는 절대 변화되지 못합니다. 돌아가자고 해서 돌아가지는 것도 아닙니다. 젊을 때에는 조석예불을 의식적으로 생각해 했지만 나이가 들어 요즈음 예불 할 때에는 가슴에 전해지는 것이 다릅니다. 예불 하는 목적이 충분히 마음속으로 공감이 돼서 경의심이 생겨납니다. 이처럼 어떤 제도나 의식도 모두가 공감하고 느낄 때 변화하게 됩니다.

▶임연태: 얼마전 'PD수첩'을 통해 선거제도가 문제의 온상으로 비춰졌는데 대안은 없는지요? ▶현각 스님: 왜 권력과 금전 중심으로 가는가의 원인을 살펴보면 결국 그것이 궁극하다는 것입니다. 출가자가 그런 것들에 기생하지 않으려면 생존에 대한 최소한의 보장이 돼야합니다. 단정 지어 말하면 노후가 보장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주지가 돼야 그것이 해결되니까 어떻게든 주지하려고 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또한 주지로 당선되면 권한과 이권이 너무 많습니다. 이것이 문제의 시작입니다.

▶김광식: 의료대책, 노후대책 등의 보장 특수 수행이력에 걸 맞는 보장을 통해 수행자가 대우받는 풍토가 절실합니다. 선거제도는 종단 문제의 핵심입니다. 종정, 총무원장, 교구본사, 종회의원 등 종단 전반에 걸친 문제이기도 합니다. 모든 선거에 급전이 개입된다는 소문이 만연한 것이 현실입니다. 범종단적 차원에서 일회성이 아니라 수차례에 걸쳐 개혁에 대한 민주적 콜로세움을 개최해서 중지를 모아야 할 때입니다. 매년 어떤 사안에 대해 종회의원 중심으로 특별위원회 3-5인 을 구성해 단발성으로 논의 해봐야 별 효과가 없습니다.

▶현각 스님: 적어도 향후 10년간 이 문제를 다룰 기구들이 조직돼야 합니다. 선거제도의 문제는 선거공영제로 해결 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잘 살던 다른 분명 희망은 있습니다. 승가가 동일한 목표를 갖고 변화하면 발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교육에서 대안을 찾아야 함은 모두가 공감하는 사실이지요. 단지 그 시스템을 어떻게 갖출 것인가에 대한 고민의 연속성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임연태: 종단내 대책기구 설립, 승가교육 제도 정비, 인재 육성 모두 행정기구의 구조조정을 필요로 하는 일 같습니다. 현재 총무원 설립을 보면 총무원이 전체예산의 3분의2 가량을 사용하고 나머지 3분의 1을 승가 교육을 담당하는 교육원과 재가포교를 담당하는 포교원이 나누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총무원을 축소하고 포교원을 키우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윤세원 교수: 종단 구조조정의 방법론에 있어 젊은 취향에 맞게 적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려울 때 돕거나 아니면 재미있게 하거나 이 둘이 아니면 안 됩니다. 세상을 보는 시각 이런 것은 호응을 주지 못합니다. 인력과 프로그램 체계가 필요함은 공감하나 현재 분위기로 제도적 뒷받침이 될지 의문스럽습니다. 조계종단의 개혁을 위해서는 다른 방면의 재가자단체를 수용해야 합니다. 승가와 재가를 통합한 교단능력의 극대화가 필요합니다.

▶임연태: 정리하자면 선거제도의 이해당사자 안에서의 변화를 도출할 수 있는 여론의 집단압력과 구조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또 정치와 개혁을 잇는 2007년 시점에 맞는 새로운 이념이 절실하다는 것은 모두가 공감하시는 것 같습니다. 끝으로 사부대중이 동참해 종단의 구조를 바꾸기 위한 기구의 필요성도 제기 됐습니다. 긴 시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정리=조동성 기자·서진 박재원 기자

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점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합니다. 하지만 재가자, 재가단체도 정치성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합니다. ▶윤세원: 현재 학생들에게 조계종에 대해 물으면 불행이 연상할 만큼 이미지가 부정적이고 비판적입니다. 불자가 아닌 일반 국민에게 불교 이미지는 너무 실추돼있습니다. 최근 상황에는 단기적 대응 외에 장기적 대응책으로 승가 교육을 다양하게 시켜야겠다는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시대흐름에 맞는 승가육성이 필요합니다. 지계의 힘과 시대의 바른 이해가 있을 때 승가가 건강해집니다.

▶현각 스님: 선원, 강원 등 현재의 승가 교육제도는 세계에서 손꼽힐 만큼 좋은 제도입니다. 이



왼쪽부터 현각 스님, 윤세원 교수, 김광식 교수

## 선거공영제 도입 등 변화 필요

### 인재육성 프로그램 개발 시급

### 장기적인 대책기구 설립해야

거 제도개혁의 일환으로 간선제, 소수 추천을 내놓기도 했지만 이것은 다수나 소수나 차이일 뿐입니다. 이에 부정확한 방법을 못 쓰게 전원 직선제로 해야 합니다.

▶윤세원: 무차별적인 직선제는 문제입니다. 대학을 예를 들면 하버드대의 경우 총장직선제를 하지 않습니다. 어느 한 교수가 만일 40대 초반에 하버드 총장이 되면 20년 넘게 해도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예일대는 콘클라베와 같은 교황선출 방식으로 총장을 뽑습니다. 선거가 필요하다면 불교적으로 폐단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 하지 않을까요? 대안으로 수행부분은 승가가 전일하고 종단 일반적인 상황은 재가의 견제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김광식 교수: 선거 문제는 모두가 함께 살 수 있는 원용살림으로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원용살림에 대한 이론과 시스템의 자율적인 정비가 필요합니다. 신흥 도심포교에 성공한 사찰을 보면 포교일선은 스님이, 사찰운영은 재

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점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합니다. 하지만 재가자, 재가단체도 정치성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합니다.

▶윤세원: 현재 학생들에게 조계종에 대해 물으면 불행이 연상할 만큼 이미지가 부정적이고 비판적입니다. 불자가 아닌 일반 국민에게 불교 이미지는 너무 실추돼있습니다. 최근 상황에는 단기적 대응 외에 장기적 대응책으로 승가 교육을 다양하게 시켜야겠다는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시대흐름에 맞는 승가육성이 필요합니다. 지계의 힘과 시대의 바른 이해가 있을 때 승가가 건강해집니다.

▶현각 스님: 적어도 향후 10년간 이 문제를 다룰 기구들이 조직돼야 합니다. 선거제도의 문제는 선거공영제로 해결 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잘 살던 다른 분명 희망은 있습니다. 승가가 동일한 목표를 갖고 변화하면 발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교육에서 대안을 찾아야 함은 모두가 공감하는 사실이지요. 단지 그 시스템을 어떻게 갖출 것인가에 대한 고민의 연속성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임연태: 종단내 대책기구 설립, 승가교육 제도 정비, 인재 육성 모두 행정기구의 구조조정을 필요로 하는 일 같습니다. 현재 총무원 설립을 보면 총무원이 전체예산의 3분의2 가량을 사용하고 나머지 3분의 1을 승가 교육을 담당하는 교육원과 재가포교를 담당하는 포교원이 나누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총무원을 축소하고 포교원을 키우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윤세원 교수: 종단 구조조정의 방법론에 있어 젊은 취향에 맞게 적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려울 때 돕거나 아니면 재미있게 하거나 이 둘이 아니면 안 됩니다. 세상을 보는 시각 이런 것은 호응을 주지 못합니다. 인력과 프로그램 체계가 필요함은 공감하나 현재 분위기로 제도적 뒷받침이 될지 의문스럽습니다. 조계종단의 개혁을 위해서는 다른 방면의 재가자단체를 수용해야 합니다. 승가와 재가를 통합한 교단능력의 극대화가 필요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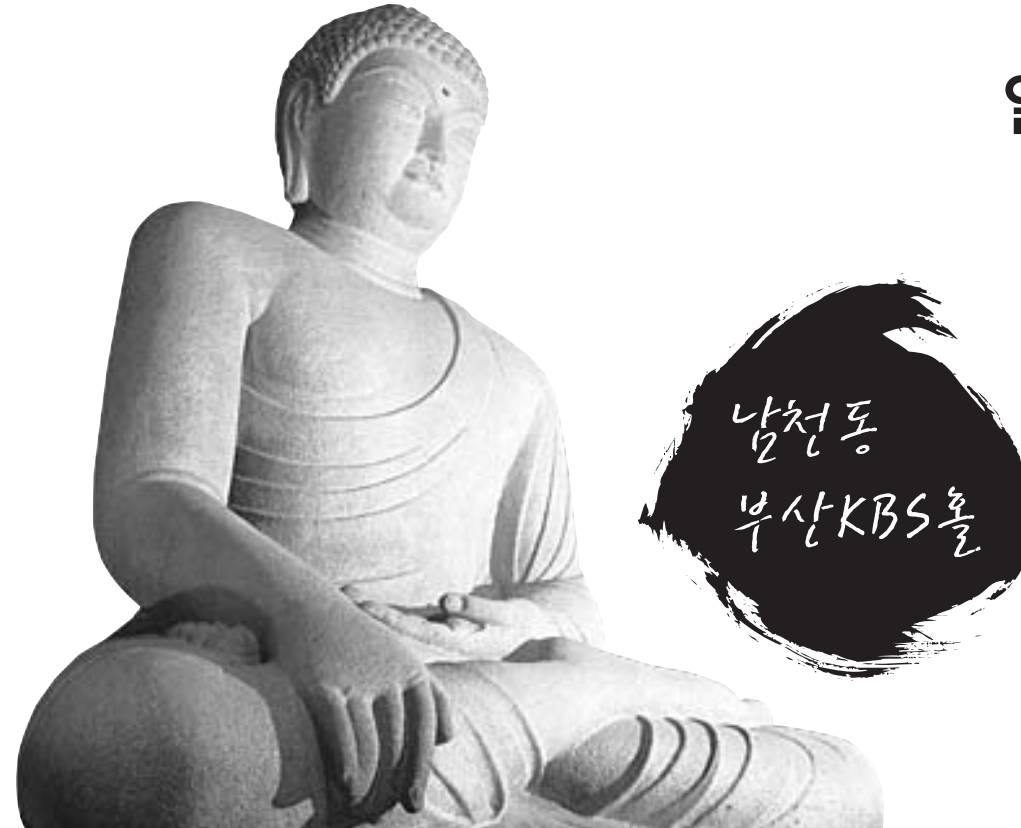
▶임연태: 정리하자면 선거제도의 이해당사자 안에서의 변화를 도출할 수 있는 여론의 집단압력과 구조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또 정치와 개혁을 잇는 2007년 시점에 맞는 새로운 이념이 절실하다는 것은 모두가 공감하시는 것 같습니다. 끝으로 사부대중이 동참해 종단의 구조를 바꾸기 위한 기구의 필요성도 제기 됐습니다. 긴 시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정리=조동성 기자·서진 박재원 기자

제8회 팔관회 및 불자단결을 위한

# 불·교·수·호·대·법·회

일시 : 불기2551(2007) 11. 6.(화) 오후2시



◎ 식전행사 : 영산대재

- 불자연예인 및 명사초청 ‘불교신행체험담’
- 팔관재계 수계법회
- 불교수호와 불자단결을 염원하는 ‘촛불서원제’
- 화합과 단결의 대동한마당 ‘다함께 하나 되어!’

※ 팔관회는 FM89.9MHZ 부산불교방송에서 생중계됩니다.

주최: (사)부산광역시불교연합회 Tel. 051)867-0501 www.bba.or.kr

후원: 부산광역시불교선도회/부산불교교섭연합회/부산불교지도자포럼/BBS부산불교방송 등 교계 각 언론